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중기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신설 등 수집·활용 세부내용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공포: 2025년 1월 21일)으로 신설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하였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하여 부과하는 간접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국제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및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을 명문화하여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2일 본부 글로벌금융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위원장을 초청해 청렴특강을 개최했다.

투명한 공단운영·국민신뢰 다짐

국민연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청렴특강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2일 본부 글로벌금융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위원장을 초청해 청렴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청렴 실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단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여 부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단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명순 부위원장이 직접 강연했으며, △우리나라 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정책 △공직자가 알아야 할 부패방지 법령과 제도 △공직자의 리더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은 국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고위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임직원의 청렴 실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이명순 부위원장과 전북지역 주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대학교병원,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감사들은 감사 업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농업유전자 7000자원 ‘백두대간’에 안전중복보존

농촌진흥청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존된 농업유전자원 7,000자원을 3일 경북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기탁 보존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해발 700미터 지하 암반층에 구축된 영구종자 저장시설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20년 산림청 산하 한 국수목원장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농업유전자원을 안전중복보존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기탁한 자원들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1980년대부터 수집 증식·평가한 보리(2,394자원), 돌콩(669자원), 밀(465자원), 옥수수(438자원), 고추(332자원), 수박(285자원), 호박(151자원), 오이(110자원), 들깨(139자원), 팥콩(137자원) 등 92작물 7,000자원이다.

이번 기탁 보존으로 농촌진흥청은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농업유전자원 총 18만 7,000자원을 안전중복보존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욱 센터장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이자 식량 주권을 지키는 기반이다.”라며, “농업유전자원의 안전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현재 총 28만 3,000여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세계 5위 수준의 식물유전자원보유기관이다. 안전중복보존된 유전자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자원이 소실됐을 때 복원하는 데 활용된다.

/오상근 기자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물·그늘·휴식 3대 수칙 지켜주세요”

농진청, 폭염기 농업인 건강 안전 행동 요령 안내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민감 직업군인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 3,704명 중 농업 분야(농림어업인 혹은 발생 장소가 논밭·비닐하우스인 경우(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활용)) 온열질환자는 전체의 671명(약 18%)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의 약 69%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했고, 발생 장소로는 주로 논·밭(78%)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2~14시(22%)에 가장 많았다. 무더위가 심해지는 7월

(24%)과 8월(52%)에 온열질환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업 전, 농작업 당일 날씨와 체감 온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농작업 중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준비한다. 챙이 넓은 모자와 밝은색의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휴대용 선풍기나 보냉 장비(얼음 주머니, 냉각 목밴드 등)를 챙긴다. 더운 시간대 작업은 되도록 피하고, 작업 일정을 조정한다.

농작업 중 갈증이 나지 않아도 15~20분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2시간보다 20분 이상 휴식한다. 더운 날에는 작업 강도를 조정하고, 농작업자를 자주 교대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작업을 멈추고 쉰다. 농작업

중 발열,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피로감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지는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농작업이 끝나면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수분을 보충한다. 작업 후에는 몸을 씻거나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며 체온을 낮춘다.

주요 온열질환 증상인 열탈진(현기증, 어지러움, 경련 및 피로감 등)이나 열사병(체온 40℃ 이상, 의식 혼란 및 기절 등)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원한 물이나 얼음으로 체온을 낮추며, 환자 상태를 살핀다.

농촌진흥청은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자율점검 점검표,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전국농촌인력증개센터 등에 배포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장마철 논콩 침수 피해 예방, 사전 관리 중요”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2일 오후,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논콩재배단지 찾아 파종 초기 생육 현황과 침수 피해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황룡위탁영농조합회사는 ‘선풍’을 주력 품종으로 170여 헥타르(ha)에서 논콩을 재배하고 있으며, 국산 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2021, 2022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2023년 6월 하순 장마로 논콩 침수피해를 겪었지만, 국립수목원과 함께 개발한 무굴착 팽속배수 기술 을 시



공하고, 철저한 물관리로 2024년에는 10아르(a) 당 408㎏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굴착 팽속 배수란 트랙터, 굴삭기와 같은 동력 기계에 배수관 매설기를

장착하여 주행과 동시에 땅속 50~80cm 깊이에 관을 매설하는 방법으로 유공관 세척이 가능하고 막힘이 적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권재한 청장은 “논콩 파종 초기에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하므로, 배수 개선 등 습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이후 생육 회복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현재 개발된 무굴착 팽속 배수 기술을 영농 현장에 확대 보급하고, 여름 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기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프리미엄 간식 ‘달콤바삭 고구마칩’

공덕농협, ‘달콤바삭 고구마칩’ 전국 CU 편의점 입점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김제 공덕농협(조합장 문용수)이 자체 개발한 프리미엄 간식 ‘달콤바삭 고구마칩’이 전국 CU 편의점에 정식으로 3일 입점해 본격적인 유통망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편의점 입점을 위해 초도물량 약 7만개를 공급한다.

‘달콤바삭 고구마칩’은 100% 국내산 고구마를 엄선해 만든 제품으로, 고구마와 아카시아 꿀 등 본연의 달콤함과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으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이번 입점은 전북농협 구경(9慶)브랜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전북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대폭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용수 공덕농협 조합장은 “가공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이 애써 키운 농산물



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고구마 상품으로 전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우수 로고노미 상품들을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농가는 농산물 부가가치 확대를 통해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